

이낙연 의원, 당대표 출마 공식선언

“민주당 쇄신에 최선”

“국난극복에 역량 쏟아야
정부에 대안 제시·선도
건설적 당정 협력 구축”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400만 당원, 100만 권리당원과 함께 민주당의 쇄신을 더 촉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는 8월 열리는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민주당과 제게 주어진 국난 극복의 역사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과 경기 침체, 반부격차 확대, 저출산고령화, 남북관계 경색 등의 위기 상황을 거론하면서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21대 국회는 국난 극복의 책임을 안고 출발했다. 국회가 시급히 할 일은 많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제를 회생시키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산업을 육성해 고용을 창출하며 청년층 등 국민계 희망을 드리기 위한 ‘경제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며 “양극화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사회입법’도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혁신과 권력기관 쇄신 등 지체된 개혁을 촉진할 ‘개혁입법’을 더는 늦출 수 없다”며 “한반도 평화 진전에 힘을 모으며 여러 방법으로 지원해야 하고 정쟁을 멈추고 국민통합을 실현하며 ‘일하는 국회’도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렇게 되도록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함께 야당의 협력을 얻으며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민생과 평화를 위해 여야가 소통하며 지혜를 모으는 가치 ‘민생연석회의’와 ‘평화연석회의’를 구성해 가동할 것을 여야에 제안한다. 세계 기회가 주어지면 두 연석회의가 충실히 운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와 전례 없는 국난극복위원장의 경험을 살려 저는 당면한 위기의 극복에 최선으로 대처하겠다”며 “국난극복의 길에 때로는 가시발길도, 자갈길도 나올 것이다. 저는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민주당에 새로운 각오와 태세

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면서 ▲책임 정당 ▲유능한 정당 ▲겸손한 정당 ▲공부하는 정당 ▲미래 정당 등을 미래상으로 제시했다.

당정청 관계와 관련해서는 “중첩된 위기는 당정협력의 새로운 강화를 요구한다. 국난 극복이냐말로 당정의 시대적 책임이고 그것이 문재인정부의 성공”이라며 “국난극복과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은 정부에 협조하고 보완하면서도 때로는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를 선도해 최상의 성과를 내는 ‘건설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렇게 되도록 민주당의 역량을 키우고 역할을 확대해 가면서 다음 세대, 그다음 세대의 민주당을 만들어 가겠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지도자를 배출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하고 먼 미래까지 지를 내다보며 민주당을 혁신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도, 보호수 시군 합동점검

전북도는 수백년 마을 주민들과 세월을 함께한 보호수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보호수 점검 및 보호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보호수란 역사적, 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로 도 내에는 느티나무, 팽나무 등 20종 647본이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에서는 지난 6월 보호수의 활력도, 훼손도, 병해충 피해, 나무 손상 등 전반적인 생육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 이중 생육상태가 불량한 보호수에 대해 외과수술, 주변 정비 등 보호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폭우 및 태풍에 대비, 가지 낙하 위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고사지 정비 등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체육계, 후진적 행태 벗어나야... 철저 조사”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
폭행, 정당화 될 수 없는
구시대적 유산”



선수,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것이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며 고인이 된 선수와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이어 “인식과 문화부터 달라져야 한다”며 “메달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다. 성적이 선수의 행복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또 “선수가 경기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며 “자기 극복을 위해 스스로 흘리는 땀방울은 아름답다. 그러나 훈련에 가혹행위와 폭행이 따른다면, 실력 메달을 따는 하더라도 값진 일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처벌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해자가 경찰과 협회, 대한체육회, 경주시청 등을 찾았으나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도 사실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스포츠 인권을 위한 법과 제도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며 “관계부처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체육계와 함께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유사 사례들이 더 있는지도 폭넓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속진 선수 사건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언급은 이번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경기인 출신 최윤희 문체부 차관이 나서서 전반적인 스포츠 인권 문제를 챙기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뉴시스

정부, 공수처 출범 준비 가속화

국무회의서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 등 대통령령 3건 심의·의결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시 필요한 관련 규정들을 제·개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고위공직자 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대통령령 3건을 심의·의결하고 개정이 필요한 기존 15건의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했다.

국회 차원의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오는 15일로 예정된 공수처법 시행이 사실상 어려워진 가운데 대통령의 제·개정으로 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규정들을 미리 갖추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회에 구성하도록 돼 있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의 위원(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여당 추천 위원 2명·야당 추천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6명 위원의 찬성으로 예비후보자 2명을 선정하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도록 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까지 여당 몫 2명의 위원 선정을 완료해 후보추천위원회 인선을 완료한다는 방침이지만 미래통합당이 야당 몫 2명의 지명을 미루면서 공수처법 시행일인 오는 15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 논의 과정조차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수석 비

서관·보좌관 회의에서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줘야 할 일이 많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 달라”고 촉구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차관 회의를 통해 ▲고위공직자 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안 ▲공수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안 ▲공수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등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고위공직자 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서류 작성 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고발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수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은 공수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이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등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이다.

이 외에도 중앙행정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이 필요한 기존 15건의 대통령령의 시행령을 일괄 개정했다. /뉴시스



조상중 의장 기시재 운영위원장



정상섭 지처행정위원장 정상열 경제산업위원장

정읍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의장에 조상중 의원 선출

정읍시의회는 6일부터 7일까지 제 25회 임시회를 열어 제8대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 6일 제1차 본회의 의정단 선거를 통해 조상중 의원을 제8대 정읍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에 기시재 의원, 자치행정위원장에 정상섭 의원, 경제산업위원장에 정상철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의장으로 당선된 조상중 의원은 “소신과 열정으로 정책의회를 지향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중책을 맡겨주시는 동료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용=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YouTube KakaoTV NAVER TV DOLM NAVER jjctv 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유투브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